

존경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그간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 년째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저희 같은 선교사는 마치 “잃어버린 이년의 세월”,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사역 환경 속에서 나이만 먹은 것 같아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치 목회나 선교사역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경우처럼 말입니다.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천국 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 곧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간략한 선교사역을 보고드리려고 하오니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겨자씨 미션 학교 사역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부터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해서 하나님 은혜로 지난 4월 졸업을 했습니다. 수업은 구글 클래스와 ZOOM 화상 수업과 ‘모듈’이라는 종이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수거하는 학습지 가정 숙제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졸업식도 원격 비디오 촬영 방식으로 만들어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졸업식이었습니다. 현재는 올해 새 학년 신학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으나 8월까지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학부모들의 경제란으로 인해 학비를 낼 수 없는 다수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로 전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세계 최장기간의 지역 봉쇄 국가이며 이만 이 천명 이상이 사망했고 매일 4천에서 8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매일, 백 수십 명 수준입니다. 한편 학생들은 대부분 학습기기가 부족하여 핸드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어서 시력이나 학습 자세, 집중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은 온라인 장비,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이 지속해서 필요하므로 중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핸드폰이라도 기증해 주시면 가난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지역 교회 사역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체가 정부 방역 방침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재개되는 상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파에나안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 중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예배가 중단되어 목회자 부부가 강단에서 기도만 하는 예도 있습니다. 반면 벤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 홍수피해로 인한 교회 건물이나 무너진 담이나 교회 마당을 시멘트로 씌우고 특히 교육관 한쪽 이 층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빈민 이주민들이 교인인 신흥교회도 숙원이던 예배당 현관 공사와 남녀화장실을 만들어서 교회 생활이 쾌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모이는 사역보다는 오히려 흩어 구제하는 사역 같은 경우는 더욱 활성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생필품이나

쌀 등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주는 사역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역 보고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한국교회도 어려운데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늘 후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2. 대면 수업이 재개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3.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노트북과 태블릿 등이 확보기증 되도록

<< 연락처>>

- 한국 연락처; 강명진 목사. 전화. 010 2024 0691
- 필리핀 현지 연락처. 전화 ; 0963-9499238682
- 후원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 강경진. 계좌; 592201-01-202699



[밤에도 공사하고 있는 벤엘 교회]